

월요광장

새해 광주 도시공간 계획을 통합하자



노 경 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 초에는 그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을 빌거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곤 한다. 또 올해에 있을 총선에 출마자들이 앞으로 수많은 공약을 쏟아놓을 것이어서, 당분간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넘쳐날 것 같다. 이러한 공약은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의 문제가 되지만, 행정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생활 불편이나 금전적 손실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장래 계획에 설정된 인구지표에 맞춰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실제 인구가 목표 인구에 못 미쳐서 이용객은 적는데 계속 운영 관리비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에, 그 계획 수립에 참여한 행정이나 전문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중앙정부의 4대강사업이고, 광주시에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매워 주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 계획을 위법하게 만드는 하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계획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획 재량의 문제이고, 둘째는 계획 수립 절차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계획은 종합적·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이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행정 작용으로 작성에 재량의 여지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그 형성 전 과정을 내용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즉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 계획을 만든 결과로 인해 초래된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획 내용은 이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협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걸쳐 차차차곡 합리성을 갖추며 만들어진다. 이러한 합리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위

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처럼 통행량을 과다 추정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립 절차를 따랐다면 그 계획 내용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새해는 광주시의 물리적·공간적인 커다란 질서를 부여하는 계획들이 결정되는, 근래에 다시없는 중요한 해이다. 먼저 도시공간 구조의 근본이 되는 2030년 광주 도시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202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2030년 도시경관 계획, 2025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이 한창 수립 중이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 여기에서 작년에 수립된 도로 부문을 감안하더라도, 주택 분야가 포함된다면 광주의 향후 10년 동안 공간 질서를 새롭게 짜는 그야말로 그랜드 프로젝트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도시 기본계획의 최대 이슈는 계획 인구지표의 설정일 것이다. 이미 광주는 계획 인구 과다 설정의 폐해를 너무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나치게 보수적

으로 낮춰 잡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공원녹지 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예산 확보와 폐지에 신중해야 하며, 경관 계획에서는 최근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망점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겠다. 정비 기본계획은 예정 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일부 해제 및 대안적 개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재생 전략계획에서는 향후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의 비전과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담았으면 한다.

각각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부서가 고유한 계획 논리로 상호간 소통 없이 추진하다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결국 시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며 애써 만든 계획이 폐기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먼저 이러한 계획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리하여 광주 도시공간이라는 큰 틀 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광주가 힘들어질 것이다. 새해 아침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만 바빠진다.

법조칼럼

사랑으로 행하는 정의



허 정
광주지검 검사

분주한 연말이 지나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왔다. 달콤했던 사흘간의 연휴가 지나기는 했지만,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의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활기차고 즐거웠을 것이다. 아마 새해 목표와 희망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이나 가정의 화목과 관계된 기본적인 소망 외에, 모든 검사의 새해 목표와 소망은 무엇보다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를 더 많이 찾아내 적결하는 것’, 즉 더 큰 ‘정의(正義)’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의만큼이나 검사들을 숙연하게 하고, 검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다.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게 되는 모든 사

건의 실제적인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 그래서 훌륭한 검사로 인정받는 것’이다.

검사생활 14년 동안의 한결같은 목표도 그런 것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정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정의’로 조금 바꿔보려 한다. 어쩌면 당연히 처음부터 그래야 했는데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

사건 당사자 사이의 재산 다툼이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고소사건에서, 끝없는 노력 끝에 진실을 밝혀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지만, 웬지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즉, 사건 처리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아마도 나의 노력과 결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정의’에는 부합되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사랑’이 터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을 해보게 된다.

예전에 어떤 선배 법조인께서, ‘법리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 당사자 사이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한 경우’와

‘법리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화해하게 한 경우’ 중에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었다.

물론 법리적으로도 완벽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아마도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다툼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상’보다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법리적인 결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일 것이다.

또한, 그 선배 법조인이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도 정의는 반드시 사랑에 터를 두어야 하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형사조정’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고, 국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그 절차가 ‘사랑으로 행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조정’은 검사의 결정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 내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서로 다했던 마음을 화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검찰과 형사조

정위원들의 사랑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영광군 한 마을의 도로에 쌓여둔 농작물을 충격하여 사망한 교통사고가 마을 주민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을 때, 법리적인 해결보다는 형사조정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마을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던 일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광주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공동네트워크’를 비롯한 각종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시민네트워크’ 사업 등이 큰 박수를 받으며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 역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검찰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광주검찰’, 이것은 필자만이 아니라 광주지검감찰청 전체의 새해 목표가 될 것 같다.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불법·부정 선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시민을 울리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법과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람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사랑’이 항상 터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이다.

응답하라, 문화전당



채 영 선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TV인기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응답하라1988’이 아닌가 싶다. 지금의 4~50대의 눈높이에 맞춰, 지난 1980년대 후반의 모습을 꼼꼼히 재현한 것이 드라마 인기를 이여 한몫하고 있다. 시기 질투 반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 TV 드라마와 다르게,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듯한 평범한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단순히 가족과 이웃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골목문화와 공동체문화가, 과거 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재 세대에게는 동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현재의 속도감으로는 마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린 듯 하지만,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또 다른 문화가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콘텐츠즈가 되었다.

‘문화도시 광주’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시청자의 입장이 아닌 제작자나 시나리오 작가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곤 한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에 전 시민과 국민이 열렬히 응답하게 하는 것은 필시 본인의 꿈이기 때문이다.

‘나를 키운 것은 8월이 바람이었다’는 미담 서정주 시인의 말처럼, ‘우리를 키운 것은 8월이 골목이었다’는 함의가 드라마

전체에서 묻어나고 있다. 이 드라마가 1980년대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골목이라는 개념이 필자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 개방적인 공간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이웃과 공유되는 새로운 형태의 골목을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에 투영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이라는 긴 산고 끝에 마침내 개관하였다. 또다시 30년이 지난 후, 과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기를 채울 바람직한 문화콘텐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신전과 주요 관공서가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아고라는 일상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민 생활의 중심지 즉 개방된 소통의 장소였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시민에게 아크로폴리스가 아닌 아고라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소통과 담론이 가득한 골목길 평상과 같은 곳 말이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열풍으로 미루어 보건대, 바람직한 문화란 필요한 것만 취하고 편의만 가득한 아파트와 같은 물질적인 개념도 아니요, SNS와 같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개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 시대의 골목이나 편지와 같이, 공유와 기다림의 미학이 함께 하는 문화야말로 30년 후 우리의 주름진 입가에 열은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다.

문화적 작품이 있는 곳이 문화공간이라면 어떤 문화가 머물렀던 시간은 문화시간일 것이다. 1988년이 우리에게 문화시간으로 다가왔듯이 먼 훗날에 2015년도 아시아문화전당과 첫 만남이 이뤄진 소중한 문화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1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존재할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인해 우리가 맞이할 문화 시간들은 매년 다채로워질 것이다. 2016년 새로운 문화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설레는 이유다.

社 說

김한길 전 대표도 탈당…安신당 성공할까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했다. 비주류의 좌장이었던 김 전 대표가 탈당함에 따라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시작된 야권의 분당 사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치 지도를 그려 내야 한다”며 자신의 탈당을 ‘창조적 파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탈당 후 안철수 신당에 합류, 야권 세력을 묶어내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추가 탈당한 현역 의원들은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주승용 의원이 오는 13일 탈당을 사실상 예고하는 등 김한길계 의원 일부의 후속 탈당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전 대표가 던진 탈당 승부수의 성공 여부는悬여져 있는 야권 세력을 안 의원을 중심으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통합할지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많다.

야권의 ‘제2신당’이 어느 정도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 본보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를 크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안철수 신당이 41.9%를 기록, 더민주당의 지지율(29.4%)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중앙일간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연말연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야권의 텃밭인 호남은 물론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신당의 약진은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반감과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지금의 여론이 4월 총선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얼마나 많은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신당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취업 수요 맞춤형도 좋지만

정부가 이공계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취업을 제고와 막대한 지원금 혜택만을 노리고 한쪽으로 쏠리던 대학이 직업훈련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조선대는 올 신학기부터 300명 정도의 인문계열 정원을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이공계로 돌린다는 계획에 따라 현행 16개 단과대를 14개로, 81개 모집 단위를 56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등이 이전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특성을 맞춰 ICT융합대학을,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 맞춰 미래자동차학부를 신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광주대와 호남대 등도 인문계열 2~4개 학과의 폐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구조 개편은 장기 인력 공급 전

망을 토대로 한다. 2024년까지 경영·경제 전공자는 일자리에 비해 12만 2000명이 초과 배출되는 반면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통은 되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립 대학 구분 없이 조정만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3년간 최대 450억 원의 지원금도 입학지원 감소로 재정이 쪼들리는 대학들이 외면하기 힘든 조건이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학 개편에 나선 당국의 고충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이 ‘인문계 죽이기’와 기초학문 소외로 치달으면 대학 본연의 역할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문 간 최소한의 균형 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광주·전남 대학은 혁신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학과 신설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관된 인재 양성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온 가족이 모인 신년 연휴 기간, 모두의 귀를 즐겁게(?) 해 준 것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공개편지 관련 소식이었다.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소식. 여기에는 두 집 살림 얘기, 첩과 혼외자 등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소영 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 재에도 최 회장의 경우 처럼 이혼이 쉽지만은 않지만 남성 중심 사회인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엔 첩거지악을 저지르지 않는 한 본부인과 이혼할 수 없었다. 첩을 보기 위해 본부인을 내치는 등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할 경우엔 사대바라 할지라도 처벌했으며 본부인은 다시 정실부인의 자리로 되돌아왔다. 고려시대에는 껍닭 없이 부인을 버리거나 첩과 지위를 바꾸면 처벌은 물론 관직까지 삭탈당했다.

부부간의 연애를 공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불륜이 로맨스로 여겨진 사례도 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

는 미국인 유부녀 심프스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함으로써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이 됐다. 당시 심프스 부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다.

에드워드 8세는 왕실과 영연방 전체가 결혼을 반대하자 1936년 12월 11일 라디오 방송에서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았다”라며 퇴위를 선언했다. 왕위 기간은 11개월이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두 사람만 안다는 말이 있다. 노소영 씨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그들 재산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 회장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특별사면까지 쟁건 뒤에야 불륜을 공개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비겁하다. 자기희생 없이 아내만 바꾸겠다는 최 회장의 행위에 대다수 국민은 배후를 자의 ‘바람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